

보도해명자료

('17.8.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'전력 적정예비율 4%p 낮춘다' 보도에 대한 입장
('17.8.8, 머니투데이)

1. 기사내용

- 산업부는 올해말 발표할 '8차 전력수급기본계획'에서 적정 예비율을 22%에서 18%까지 낮추기로 하고 세부 조율을 진행중
 - 최소예비율은 현재 15%를 유지하되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7%에서 3%로 축소할 계획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적정 설비예비율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은 학계, 연구기관 전문가와 시민·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8차 수급계획 워킹그룹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이며, 아직 이 부분에 대해 확정된 바 전혀 없음
- 정부는 적정 설비예비율 등 8차 계획 안이 마련 되는대로 공개하여,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(044-203-5240)

권순목 사무관(044-203-5242)